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 News Letter

### 중국 방위산업 성장과 해외판매 전략

지난 11월 14일 자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은 중국 방위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개척 전략을 소개하였다.

첫째, 중국 방위산업체 특수성이다. 중국 방위산업체는 이윤 위주의 서구와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당(黨)이 운영하여 이윤 창출을 크게 지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1개의 미국산 무기 및 장비를 구매할 비용으로 중국산 무기 및 장비를 2~3개를 살 수 있으며, 이는 태국 해군이 중국 원(元)급 잠수함을, 미얀마 정부가 JF-17 전투기를 도입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한다.

둘째,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소외받는 국가들에게 중국산 장비와 무기를 공급하여 미국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및 서방국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로 파키스탄,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와 발틱해 벨라루스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남미 베네주엘라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이들 국가에게는 장비와 무기 판매 대금 결제 방식을 유연하게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베네주엘라로부터는 원유를, 태국에서는 말린 식품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메니스탄에서는 천연가스를 장비와 무기의 판매 대금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넷째, 중국 방위산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압박 조치에 대응하여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관하고 있는 “일대일로(BRI)”, “군민 일체화(CLMI),”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계획과 융합하여 해외무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우선 중국 방위산업체들이 해당국에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건설을 제안하면서 중국산 장비와 무기 판매를 동시에 추진하여 해외 방산수출을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 방산기업과 국영 방위산업체 간 일체화를 위해 민간 중소형 방산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영 방위산업체가 협업하여 차세대 장비와 무기를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군민 일체화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방위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을 위해 『Made-in-China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중국산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선 미국과 서방국가의 성능이 우수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25년에 전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중국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과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다양한 연구센터와 과학기술 연구소를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방위산업체가 2014년 미국 실리콘 벨리에 인공지능, 자동화 및 무인화 관련 파괴적 기술(disrupting technology)을 연구하는 혁신센터(innovation centre)를 개설하였고, 2017년에 호주 시드니과학대학교 내에 벤처기업, 그리고 독일 대학과 로봇 관련 연구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국 화웨이 통신사가 호주 국립대학교 및 미국 유수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

하고 있는 사례들이었다.

현재 중국 방위산업체는 Al-Khalid 또는 Type 90-II/VT-2000 주전차(MBT), Jiangkai(江凱)-II 프리깃함, JF-17/FC-1 전투기, Z-10/20 헬기, J-20/31 스텔스기를 생산하는 등 미국 다음으로 장비와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레이저전, 전자포, 극초음속 활공체(HGV), 무인잠수정 및 무인수상함 개발에 있어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장비와 무기의 해외 수출은 급상승 추세이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조사를 통해 중국산 무기의 해외 구매국이 90년대 30여 개국에서 2000년대 44개국으로, 그리고 2010년~2017년 간 66개국으로 확장되었다면서 향후 무기구매국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 China Daily, October 10, 2018; Jane's Defence Weekly, October 17, 2018, p. 4; November 14, 2018, pp. 24-30.